

“씻! 불 끄고 혼자서만 보세요”

4년 만에 지상파 안방극장으로
“올해 인연 잘 닿아 계속 드라마
특이한 캐릭터, 도전의식 자극”

연기자 이시아가 변화무쌍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시아는 9월5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오늘의 탐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캐릭터를 맡아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3월 케이블채널 tvN '나의 아저씨'에서 성숙한 40대 여성의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후 이시아는 이미 지 변신이다.

이시아는 스스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데에 높은 만족감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29일 서울 영등포의 한 쇼핑몰에서 열린 '오늘의 탐정' 제작발표회에서 “올해는 인연이 잘 닿아 계속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고 기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의 탐정'은 이시아가 2014년 종영한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후 4년 만에 출연하는 지상파 미니시리즈다. 게다가 한 해 두 편의 드라마 출연은 처음이다.

“항상 다작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지만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



“특이한 캐릭터라 욕심이 났다”는 설명이 공감을 갖게 한다. 이시아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KBS 2TV 드라마 '오늘의 탐정' 제작발표회에서 출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KBS

았다. 다행히 올해는 인연이 잘 이어지고 있어 '나의 아저씨' 이후 쉬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시아가 휴식을 반납할 정도로 '오늘의 탐정'에 탐을 낸 건 “연기자로서 표현

하고 싶은 욕심”의 도전의식이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캐릭터가 아니어서 연기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호러·스릴러의 장르와 독특하지 않은 소재, 캐릭터의 설정이

특이하고 독창적이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시아가 맡은 선우혜는 빨간 원피스와 구두, 립스틱을 바르고 잔혹한 사건 현장마다 등장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두 탐정을 미궁 속으로 빠트리는 인물이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이시아는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최다니엘·박은빈·김원해 등 출연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밀을 쥐고 있는 캐릭터를 맡아 자신의 말 한 마디로 스포일러가 될 것을 우려하며 취재진에 양해를 구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궁금증과 호기심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가 됐다.

그는 “비밀스러운 인물이어서 표정으로 연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경험이 많지 않아 공포감과 미스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기에 집중할 수 있어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다”고 했다. 연출자 이재훈 PD는 “촬영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아는 시청자들에게 드라마를 100% 즐기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맹위를 떨치던 더위가 물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공포와 오싹함을 최대한 즐기면서 시청하고 싶다면 방의 불을 끄고 혼자 보길 권한다”고 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해시태그 컷



한지민·헤리 '커피 차' 우정 고사

배우 한지민과 헤리의 우정이 보기 좋다. 한지민이 주연으로 나선 드라마 '아는 와이프' 촬영장에 헤리가 '커피 차' 선물하고 현장도 찾았다. 두 사람은 2015년 드라마 '지킬 하이드, 나'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우애를 다져오고 있다. 한지민은 “비 오는 날 쌀쌀처럼 촬영장까지 와준 헤리”라며 스태프들이 모두 ‘심쿵’했다고 말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자매처럼 무척이나 닮았다. 이경연 기자

#스포츠동아 #한지민 #헤리 #여자들의의리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연예 잡학사전>

조기종영·중도하차 땀 미리 받은 출연료 반납

시청률 부진이나 출연자 사정으로 드라마가 조기종영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드라마가 애초 예정했던 방송회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만큼 출연료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기자들은 방송회수에 따라 출연료를 정산받기 때문이다.

연기자들은 드라마 방영회수를 기준으로 출연계약을 맺는다. 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회당 액수’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16부작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 출연료는 회당 금액에 16을 곱하면 되는 것이다. 조연·단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방송 전 해당 출연료를 미리 받는다.

하지만 드라마 방영 중에 조기종영하게 되면 연기자들은 출연료를 반납해야한다. 종영 이유가 시청률 부진인데, tvN '식사를 합시다' 촬영중 입대하 윤두준처럼 출연자 개인사정이든, 조기종영하면 모든 출연자들은 이미 받은 출연료를 제작사에 돌려줘야 한다.

반납해야하는 출연료는 방송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조기종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다음 회분을 촬영했는데 방송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받은 회당 출연료의 50%만 돌려주면 된다. 아예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100% 반납한다.

결국 연기자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만 출연료로 받기에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송사가 자신들의 사정을 들어 갑작스럽게 편성을 변경하게 되면 연기자들은 다급히 일정을 조율해야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연기자가 개인사정으로 중도하차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방송된 회수만큼 출연료를 받는다. 출연료를 미리 받았다면, 방송되지 않은 회수만큼의 출연료를 반납해야 한다. 백슬미 기자

편집 | 김형주·조형일 기자

‘목숨까지’ 내놓았던 1954년 축구한일전, 영화로 만든다

극심한 반일 감정속 투혼의 실화
‘신의 한 수’ 조범구 감독 연출 맡아



1954년 스위스 월드컵 한국대표팀

들은 그야말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각오로 나선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라이벌의 기원’은 한일전에 나서는 선수들, 이들이 이끌면서 스위스월드컵 출전에 성공한 감독의 이야기가 주요 줄거리다. 이와 함께 극심한 반일감정을 고려해 한일전 출전을 우려한 이승만 대통령 등 정치·사회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함께 녹여내는 문물한 드라마다.

특히 당시 대표팀을 이끈 이유형 감독은

한일전 출전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면서 “이기지 못하면 현해탄에 몸을 던지겠다”고 했고, 이 말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일전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한일전 결과는 2전1승1무. 예선 1차전에서 5대1의 대승을 거뒀고, 2차전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해 스위스월드컵으로 향했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29일 “실화를 바탕으로 당시 역사적인 배경과 분위기를 녹여내는 만큼 제작 규모도 상당할 전망”이라며 “주요 배역 캐스팅과 촬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조범구 감독은 바둑과 액션을 접목한 영화 ‘신의 한 수’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라이벌의 기원’을 통해 실화바탕의 짜릿한 승리의 역사를 스크린에 펼쳐내는 도전에 나선다. 이혜리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정상대로 돌아온 BIFF 정상으로 향해 다시 뚝

감독조합 등 보이콧 철회

부산국제영화제가 4년의 부침을 뒤로 하고 화려한 영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동안 영화제 참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했던 배우와 감독 등 영화인들도 올해 대거 부산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4일 개막해 열흘간의 축제를 벌인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촉발된 정치권의 영화제 외압 논란, 이어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사퇴 압력과 검찰 고발은 영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는 4년여 동안 정치권의 영화제 외압의 상징처럼 거론된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영화제는 재정비 끝에 정상화 됐다. 무엇보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영화제로 복귀함에 따라 영화제 보이콧을 막판까지 유지해온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일부 단체가 이를 철회했다. 한동안 축소했던 주요 배급사들의 라인업 발표 등의 행사도 규모를 키운다.

부산시 역시 영화제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영화제에 투입되는 부산시 지원예산을 국가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영화제를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각각 진행기로 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계 현안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내년은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는 물론 최근 영화계 주요 화두인 남북영화교류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 기대가 상당하다. 영화제 측은 9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개막작을 비롯해 출품작 및 주요 방향을 공개한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가장 짜릿한 스포츠 빅매치로 통하는 한일전, 그 가운데서도 역사에 기록된 사상 첫 축구 한일전이 영화로 탄생한다. 1954년 스위스월드컵을 앞두고 아시아예선에서 벌어진 극적인 한일전 승리의 기록을 담은 영화 '라이벌의 기원'(가제)이다.

조범구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는 스위스월드컵 출전을 놓고 1953년 일본과 우리 축구 대표팀이 벌인 한일전을 그린다. 1945년 8·15 해방으로부터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일본과 맞붙는 축구대결이었던 만큼 당시 국민적인 관심은 물론 이에 나서는 선수



대세와 대세가 만났다. '마블리'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마동석(왼쪽)과 차세대 연기자로 주목받는 김영광이 영화 '원더풀 고스트'(감독 조원희)에서 호흡을 맞췄다. 추석 연휴 극장가의 유일한 코미디 영화다. 남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유도관장 장수(마동석)에게 정의감 넘치는 경찰 고스트(김영광)가 달려붙어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 해결을 위해 합동수사를 펼치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개봉에 앞서 영화 홍보를 위해 29일 서울 압구정CGV에서 제작보고회를 열었다.